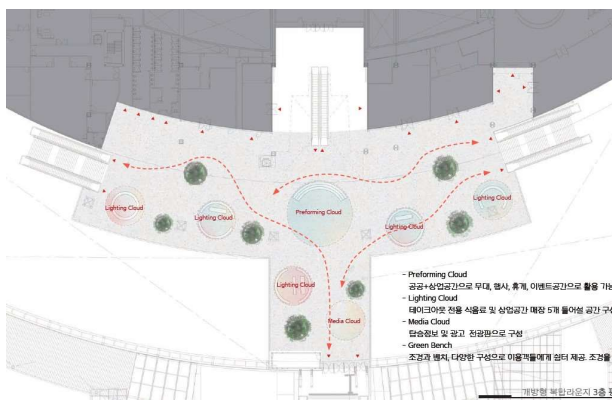


배포 일시	2022. 6. 20.(월)		
담당 부서 (총괄)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970)
		담당자	사무관 류윤하 (044-201-4774)
보도일시	2022년 6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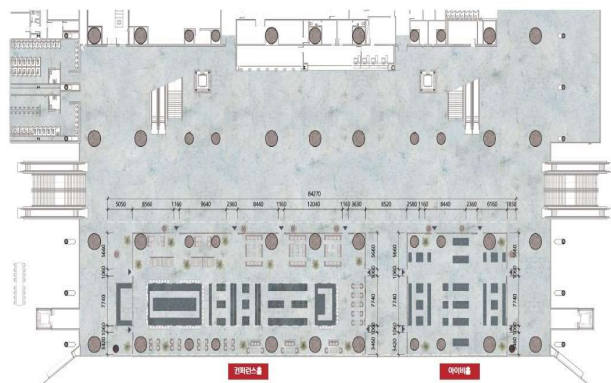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 서울역·오송역 문화와 편의시설 융합된 개방형 복합라운지로 시범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이하 코레일)는 그동안 승·하차 대기과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역 3층(`22.12월)과 오송역2층(`23.2월)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사업개발본부)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라운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젊은 감성을 더하여,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하였다.



서울역 3층 평면도



오송역 2층 평면도

<KTX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22.12월, 2,150㎡)>

- 전통과 환경을 모티브로 한 “구름형 모빌”
 - 녹색식물 식재된 그린벤치로 식물원 느낌의 쉼터로 조성
-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벤치)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하여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공간,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구성된다.
 -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구름형 모빌(한지 청사초롱 모티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Green Bench)를 배치하여 식물원과 같은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역3층 복합라운지 조감1



서울역3층 복합라운지 조감2

<KTX오송역 2층 복합라운지(23.2월, 1,336㎡)>

-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 특성을 감안하여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원형기둥 위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오송역2층 복합라운지(외부조감)



오송역2층 복합라운지(내부조감)

- KTX서울역3층(2,150㎡) 복합라운지의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시작하여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1,336㎡, `23.2월 개방예정)은 현재 기존시설(컨벤션센터) 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개발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거듭나, 보다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주요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970)
		담당자	사무관 류윤하 (044-201-4774)
담당부서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책임자	처 장 박노주 (042-615-4239)
		담당자	부 장 김숙희 (042-615-4241)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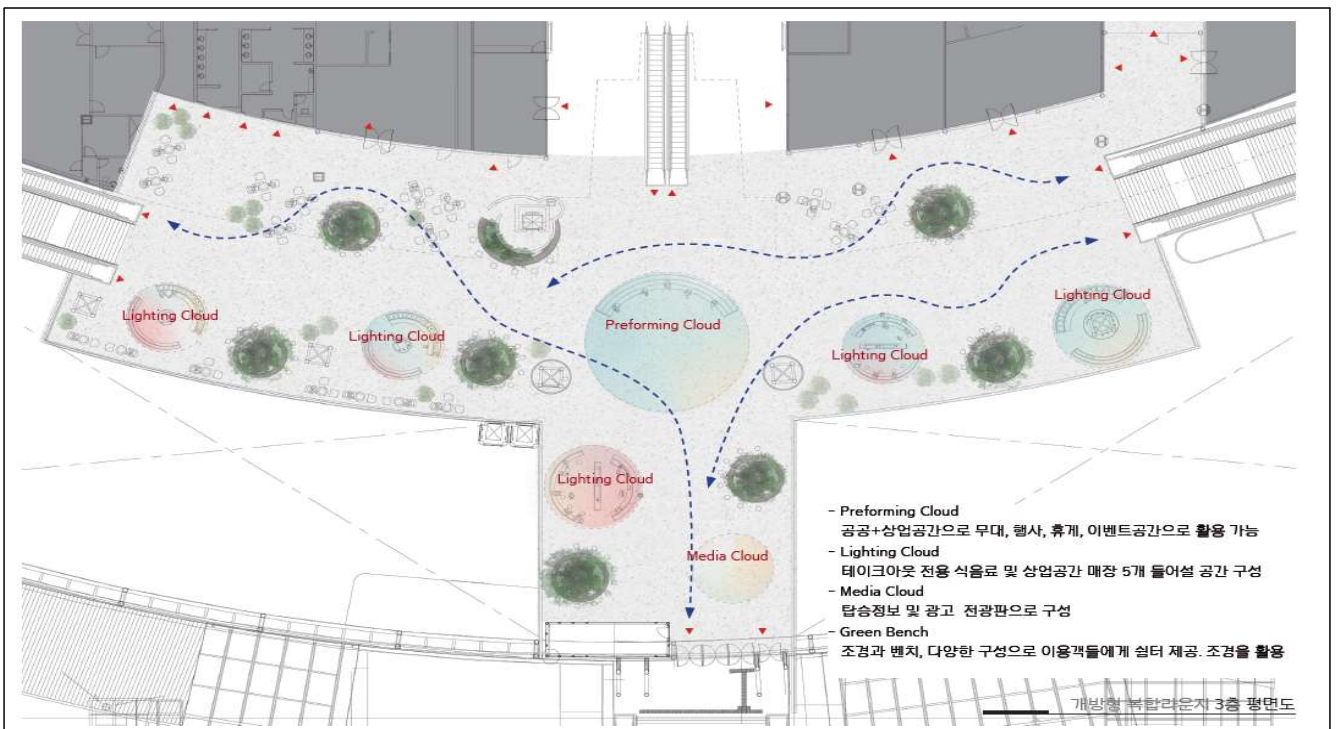
서울역 구름형 모빌(키네틱아트) 개방형 복합라운지

- (개방시기) '22.12월 라운지 Open
- (면적, 2,150m²) 공용면적(통로+무대+쉼터) 70% + 편의시설 면적 30%

□ **【Concept】** 구름형 모빌의 개방감과 녹색식물 벤치가 어우러진 식물원 분위기의 쉼터가 있는 개방형 복합 라운지(Floating Clouds)

Media Cloud	Performing Cloud	Lighting Cloud
		
<p>영상, 안내,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게이트 출입구에 위치하여 여행객들의 탑승정보, 대기 고객들을 위한 뉴스 등을 제공 - 조경과 벤치의 구성, 단가-장기로 체류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 배치 	<p>공연,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50명의 대공간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 - 공공, 상업시설의 교차점으로 무대, 행사, 휴게, 이벤트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높은 층고차이를 극복하고 영역과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 	<p>판매, 휴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소의 식음료 매장을 동선상에 배치하여 3층 개방형 복합라운지 활성화 - 다양한 테이블 배치하여 이용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조경을 활용해 역사내부를 자연친화, 이용객 친화적 복합 공간 조성

□ 서울역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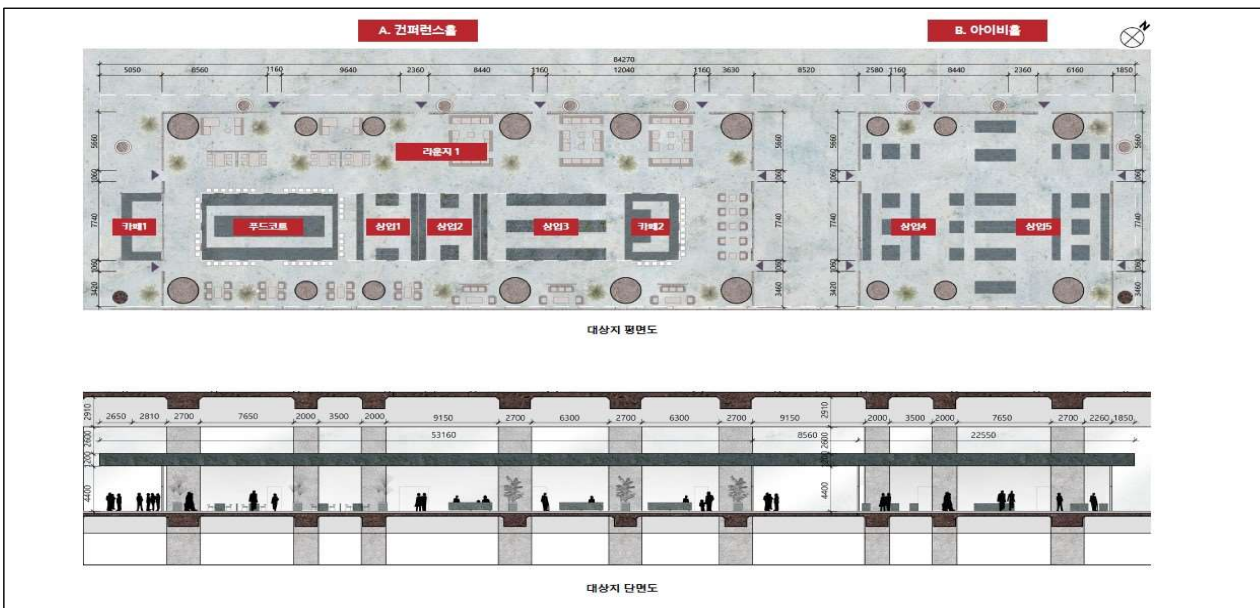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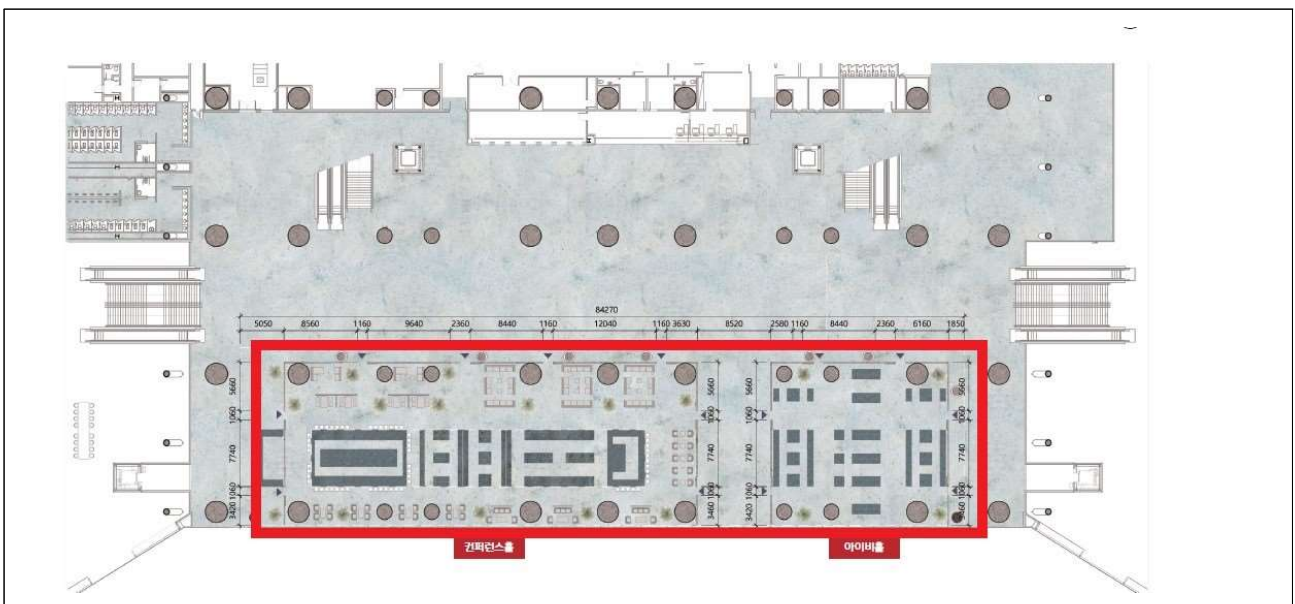
오송역 개방형 복합라운지 (수평슬래브 공간배치형)

- (개방시기) '23.2월 라운지 Open
- (면적, 1,336㎡) : 공용구간(심터) 50% + 편의시설 50%

□ **【Concept】** 수평슬래브 설치로 높은 층고와 느낌이 다른 공간감, 원거리에서 원형기둥의 질서감이 돋보이는 개방적인 감성의 휴식공간 구성



□ 오송역 2층 평면도



참고3

경제적인 효과 (해외사례, 영국 버밍엄)

□ 해외사례(영국 버밍엄)를 살펴보면, 이번 복합라운지 시범개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① 철도역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철도이용 유동인구의 점진적 증가
- ② 복합라운지가 지역사회명소가 될 경우에는 숙박객 증가, 지역상권 발달, 토지가치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 ③ 추가적으로 복합라운지 내 매장운영으로 177개의 일자리가 신규발생

※ 한국은행 발표, '19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식음료서비스업, 10억원당 19명)을 적용할 경우 **서울역 80명**(연매출 42억원), **오송역 97명**(연매출 51억원) 일자리창출 예상

【해외사례】 영국 중부지역 버밍엄(인구 약100만)의 노후화된 뉴 스트리트 철도역(1967년 재건축)의 진출입구, 플랫폼, 역사 내·외부 등을 전면개량('15년)한 이후에 철도역 **유동인구 12배 증가**, 인근 **숙박예약률 80%이상**, **토지가치 14%상승**, **지역상권 투자활성화**가 되었음

(출처: Regenerating Britain's railway stations: six case studies, Rail Delivery Group)

